LGU+, 지하철 2호선 '미래형 정거장'으로

50개 역사 '스마트 스테이션' 사업 본격화

LG유플러스가 서울교통공사와 지하철 2호선 50개 역사에 '스마트 스테이션' 적용 사업을 본격화한다. /LG유플러스

지하철 2호선이 똑똑해진다. LG유플러스는 서울교통공사와 지하철 2호선 50개 역사에 '스마트 스테이션' 적용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3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이날 롯데정보통신·하이트론씨스템즈와 컨소시엄을 맺고 서울교통공사 답십리 본사에 모여 이 같은 내용의 착수 보고회를 마쳤다.

스마트 스테이션은 안전, 보안, 운영 효율 향상을 위해 지능형 통합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미래형 도시철도 정거장이다.

핵심 과제는 지하철 역사의 기능고도화, 시스템 통합, 5G 전용망 구축이다. 긴급상황 발생 시 역무원이 보다 신속하게 정보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3D MAP'을 구축하고 위치별 CCTV 화면을 통한 '가상순찰'로 역사의 안전과 보안을 한층 강화시켜주는 지능형 CCTV도 설치한다.

시설물 관리, 안전·보안 강화, 승객 서비스 및 열차 운행을 지원하는 '메트로(Metro) IoT' 통합 플랫폼, 다수의 고화질 CCTV 데이터 처리, 역무원들을 위한 가상현실(VR) 교육 솔루션의 밑바탕이 되는 5G 전용망 구축 등이 골자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중기부-대한상의 中企 근로자 복지 향상 나선다

(앞줄 왼쪽 4번째부터)박영선 중기부 장관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중소기업 직원들이 여행, 건강검진, 경조사 등의 복지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동시에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민관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상의는 다음달 말 '중소기업 공동복지 플랫폼'을 오픈해 휴양·여행, 건강검진, 경조사 등의 복지 상품을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시장 최저가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복지서비스 참여 업체인 대명호텔앤리조트, CJ CGV, SK엠앤서비스, 예다함상조 등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김승호 기자 bada@

'벙개'의 깊은 뜻

기자 수첩
김 승 호 〈산업부〉

기자가 청와대를 출입하던 지난해 5월26일. 저녁 무렵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한 통이 휴대전화에 찍혔다. 27일 10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는 내용이었다.

문자를 받고 밤새 무슨 내용일지 상상에 잠겼던 기자들은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춘추관에 하나 둘씩 모여들었다.

행여나 2층에 마련된 브리핑룸 자리가 부족할까 한참 전부터 가방으로 영역표시(?)까지 하는 풍경도 연출됐다. 발표시간인 오전 10시가 임박하자 문 대통령이 춘추관 브리핑룸 단상에 섰다.

그러면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제 오후,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라고 밝혔다.

아뿔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1차 남북정상회담을 한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비밀리에 치른 것이다. 당시는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북미정상회담을 예정하고 있는 시기였다. 김 위원장이 갑자기 친 '벙개'에 문 대통령이 판문점으로 달려갔던 것이다.

1년 여의 시간이 훌쩍 흐른 지난달 30일 오후. 또한번 믿을 수 없는 장면이 연출됐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까지 등장하며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것이다. 그것도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말이다.

이날 세 정상의 만남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오기전 남긴 트위터에서 비롯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그곳(한국)에 있는 동안 김 위원장이 이것을 본다면, 나는 DMZ(비무장지대)에서 그를 만나 악수하고 인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이 평양에서 한 걸음에 달려왔다. 트럼프가 친 '벙개'에 김 위원장이 흔쾌히 수락한 것이다.

당초 2분 정도로 관측됐던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만남은 1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이것을 놓고 3차 북미정상회담인지, 아닌지를 놓고 논란도 있다. 하지만 횟수는 중요하지 않다. 만남이 중요하다. 우리는 알고 있다. 지인 사이의 '벙개'는 친하지 않으면 요청도, 수락도 못한다는 사실을. /bada@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7월 4일 (음 6월 2일) 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지는 잎을 보면 내 신세를 보는 듯. 48년생 된다, 된다 하면 정말로 그렇게 된다. 60년생 우물에서 숭늉 찾지 말고 매사 순서대로. 72년생 태양이 떠 있는 한 꿈을 버리지 마라. 84년생 가는 사람도 잡아야 할 때.

소 37년생 자식의 잘못은 내가 해결. 49년생 큰 둑도 작은 구멍으로 무너짐을 명심. 61년생 내용보다 포장이 중요할 때도 있다. 73년생 무지가 지식보다 큰 확신을 주니 주의. 85년생 시샘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다.

호랑이 38년생 나이 든다는 것은 늙는 게 아니라 성숙해지는 것. 50년생 사방으로 운이 열렸으니 무슨 일이든 도전. 62년생 문서로 인한 이익이 있으니 활용. 74년생 분수에 맞게 행동. 86년생 이기적인 마음은 희석시켜라.

토끼 39년생 부드러움으로 상대를 대하면 실수가 적다. 51년생 인연은 처음도 중요하나 끝도 중요. 63년생 수고로움이 많으나 돌아오는 것은 적다. 75년생 주변의 원망을 듣는다. 87년생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분풀이.

용 40년생 멀리 있다 해서 소홀히 대하면 후회. 52년생 행복은 고유한 것이니 남들 기준에 맞출 필요 없다. 64년생 오늘이 시작하기 딱 좋은 날. 76년생 천하를 다 얻는 듯한 날. 88년생 돌아서 가는 길이 여유를 준다.

뱀 41년생 우는 아이는 젖을 줘서 달래야. 53년생 삶의 질은 전적으로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 65년생 어진 친구를 만나 좋은 정보를 얻는다. 77년생 돈을 갚을 능력이 있어야 돈도 꿀 수 있다. 89년생 유아독존은 자제.

말 42년생 실추된 명예가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54년생 옳은 일에 시비 걸 사람은 없으니 소신대로. 66년생 낙숫물에 바위가 뚫리니 꾸준한 노력을. 78년생 어려운 일은 부모님과 상의. 90년생 친구와 의견충돌을 주의.

양 43년생 고생 끝에 낙이 오고 보람이 있다. 55년생 날씨 탓만 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 67년생 금전 문제로 속상할 일이 생긴다. 79년생 희로애락을 얼굴에 함부로 나타내지 마라. 91년생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원숭이 44년생 과유불급이니 지나친 운동을 삼가라. 56년생 동남쪽으로 여행을 떠나면 길하다. 68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아는 길도 물어서 가자. 80년생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크게 보고 행동. 92년생 3시 이후 운전주의.

닭 45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방황이 시작. 57년생 자녀에게 지나친 간섭은 관계를 악화시킨다. 69년생 마음이 울적하니 친구가 위로. 81년생 아름다운 당신이니 자신감을 가져라. 93년생 투기인지 투자인지 잘 살펴라.

개 46년생 좋은 꿀을 얻으려면 벌통부터 손질. 58년생 보기 싫은 사람도 때로는 아쉬운 법. 70년생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모르니 최선을 다하자. 82년생 믿음을 가지면 좋은 결과. 94년생 유혹이 많으니 절제가 필요.

돼지 47년생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칠 수 있으니 조심. 59년생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선물이 들어온다. 71년생 판단력이 흐려지기 쉬운 날. 83년생 약속이 겹칠 수 있으니 주의. 95년생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우려라.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5			
	2			1			5	
		8	7		3	2		
8		2				6		9
	7						2	
9		6				5		4
		4	2		8	1		
	1			7			4	
			9		1			

				4	2	9		3
					6			8
				8	3		1	
				3		5		
3		8	2			1		
5	6	1						
1			4	7			5	2
		7				6		1
9	8					3	4	

스도쿠 정답

2	3	7	1	4	9	5	8	6
8	4	9	6	7	5	3	1	2
5	6	1	8	3	2	4	9	7
4	7	5	2	9	1	6	3	8
3	2	8	4	5	7	1	6	9
9	1	2	3	6	8	7	5	4
1	9	4	2	5	3	8	7	6
6	5	3	9	1	4	2	8	7

7	4	3	1	5	6	2	8	9
1	9	6	8	2	3	7	5	4
2	5	8	9	7	4	3	6	1
4	3	1	5	9	8	2	7	6
6	8	5	3	1	2	9	4	7
9	7	2	6	4	1	8	3	5
8	2	4	7	3	5	6	1	9
3	6	9	4	8	7	1	2	5
5	1	7	2	6	9	4	8	3

문제 제공= 보누스

김상회의 四季

정말 골치 아픈 관살혼잡

여인이 불안한 표정으로 들어선다. 그다지 더운 날도 아닌데 얼굴은 벌겋게 상기되어 있다. 아들이 미국에 유학 가 있다가 방학 때 나와서 잠깐 아가씨를 소개받았고 인연이 되려했는지 서너 번 만나고는 결혼을 결정한 것이다. 너무 급작스럽게 진행이 돼서 내심 걱정이 되기는 했지만 아들이 결혼을 해서 안정되게 생활하고자 한다 하니 허락을 했다. 생년월일을 보여주는데 사주의 탁함에 기분이 좋지 않았다. "결혼을 시켜도 오래 갈 인연이 아니예요." 이 아가씨는 사연이 있음이 분명하다. 만난 지 두 달 만에 결혼을 발표하면서 아기씨는 자기는 곧 외국으로 갈거니 부모님 친지 친구만 초대해 작은 결혼식을 하자고 했단다. 그러나 남자 집은 그럴 수 없으니 예식장 예식을 주장했고 청첩장을 찍었는데 누군가에게 연락이 왔다는 것이다. 그 아가씨는 직장을 다니면서 집을 나와 있었는데 사연인즉슨 다른 남자와 반 동거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전화는 그 남자로부터의 전화였다. 그런데 아들이 그냥 결혼하겠다고 한다는 것이다. 서로 잘 통한다며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며 이 말에 여인은 무너지고 만다. 그러나 필자의 걱정은 다른 데 있었다. 아가씨의 영악함이 엿보여서다. 편재격이니 눈치가 빠르고 이해관계에 민감하다. 너무나 적극적인 아가씨의 태도는 외국에 유학시킬 만큼 남자집의 능력이 되는 점도 놓칠 수 없는 조건이었지만 외국에서 계속 생활할 여건인 것도 자신의 현재 처지에서 탈피할 수 있음은 물론 자기의 처지에 가장 문제없이 결혼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였던 것이다. 과거가 과거로만 끝나면 좋겠지만 딱 자리 잡고 있는 관살혼잡의 기운은 조건만 형성되면 또다시 발현될 기운이니 어찌해야 될 거나…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집인 편집국장	이 장 규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23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338호